

## 우하량 유적 적석총의 축조 목적 再考

원 중 호\*

### 국문초록

우하량(牛河梁) 유적은 2003년 공식적으로 발굴이 완료됐다. 현재도 관련 유적들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된다. 1983년에 확인된 대규모 적석총 군의 존재는 동북 지역의 신석기 시대 후기 적석총 해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적석총이 축조된 목적과 사회적 특징을 매장 방법과 출토 유물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 동북 지역에 있는 적석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위계 구조 집단의 출현 여부에 집중되면서 적석총 무덤 속성의 특징인 축조 목적과 거주인의 세계관, 생존 능력과 정신문화의 관계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도 동북 지역의 신석기 시대 후기 적석총 사회들의 한시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출토 유물들이 대규모 공동체 사회의 특정 위계 집단과의 상관관계 맥락으로 해석되는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우하량 서로 다른 지점 적석총(제2, 3, 5, 16지점) 내부의 매장 관습과 출토 유물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유로운 매장 방법들과 부장품 옥기 특징의 자유로운 변화 양상을 확인했다. 당시 우하량 적석총의 축조 목적을 알 수 있는 고고학문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행해진 매장 방법들의 발견이고, 둘째는 생동감 있고 자유로운 부장품 옥기의 종류와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한 자의 변화, 셋째는 구성원의 이동 및 교류행위가 자유로웠던 적석총 사회 구조의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씨족 사회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영역 표시 수단인 특징이거나, 농경 정착 사회의 규격화된 집단묘로 알려진 우하량 유적 적석총이 축조된 목적을 재고찰하였다.

[주제어] 우하량 유적, 우하량 적석총, 매장 방법, 원시 제의 건축, 부장품 옥기, 적석총 사회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우하량 적석총 축조 목적의 사회적 특징 |
| II. 우하량 유적             | V. 맺음말                    |
| III. 우하량 적석총의 축조 목적 分析 |                           |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졸업 / wwwonjh@gmail.com

## I. 머리말

중국 동북 지역의 신석기 시대 적석총들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대능하(大凌河) 유역에서 새로운 적석총 발굴 자료들이 정리되면서,<sup>1)</sup> 대능하 중상류에 있는 적석총 사 용집단들의 교류와 그 실체를 규명할 수가 있는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시급한 상태다. 동북 지역의 신석기 시대 후기 고고학문화인 홍산문화의 적석총과 적석총 사용인 사회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sup>2)</sup> 우하량 유적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 양상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옥기 부장품, 제사용 도구를 통해 당시 대규모 공동체 사회 위계의 존립과 사회 분공(分工) 구조의 성격이 비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동북 지역의 돌무덤(石塚) 묘제의 특징인 적석총은 시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와 그 것을 놓아두는 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다. 내부의 묘장(墓葬)<sup>3)</sup>들과 매장 시설(대형 무덤)들은 묘역의 활용과 이곳에서 행해진 의례의 결과물로 옥기 부장품이나 묘장 주변에서 발견된 원시 제의(祭儀)에 관련된 흔적들과는 구분된다. 우하량 유적에는 적석총 사회의 정신문화 특색인 소규모 집단의 매장 방법과 대부분 인공으로 조각된 옥기가 부장된 매장 시설이 발견된다. 적석총(제2, 5지점)에는 의례 장소로 보이는 제단이 발견되었지만, 제단 이외에도 묘실 구조가 특징적인 무덤과 인공으로 건축·사용·이동됐던 흔적이 있는 건축물이 주변에 있다.<sup>4)</sup>

우하량 유적의 제(諸) 적석총의 매장 양상은 각기 서로 다른 위치와 방법으로 나타난다.<sup>5)</sup> 적석총 묘역의 변화는 당시 내부의 소규모 복합사회집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교류 관계가 가능한 것이 원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행해진 다양한 매장 방법과 생자(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의례가 당시 사회의 특징에 영향을 받은것이다.

우하량 유적의 건축지들과 대표적인 적석총(제2, 5, 3, 16지점)을 매장 관습(매장 방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출토 유물(부장품)의 사용자인 종교직능자(Religion specialist)<sup>6)</sup>의 존재와 그들의 사회 영향력 변화를 통해 적석총 축조 목적의 사회적 특징을 재고찰하겠다.

1) 熊增瓚, 樊聖英, 「遼寧朝陽半拉山墓地考古發掘取得重大收穫」, 『文物考古周刊』 5, 2016, 1~10쪽.

2)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인의 묘제와 사후 세계관」, 『古文化』 56; 이상균, 2000 『한반도 신석기 옥기 문화의 계보』, 『중국사 연구』 50, 2007; 오강원, 「동북아시아에서의 초기 문명 기원과 문명의 고고학적 발현」, 『한강고고』 1, 2007; 이창규,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요령 지역 무덤의 부장 유물과 그 변천」, 『요하 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창규, 우명하,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108, 2019; 임상택, 「한반도 신석기 시대 복합 수렵·채집 사회 성격 시론」, 『한국 신석기 연구』 30, 2015; 오대양, 「홍산문화 적석총 유적의 형식과 발전 과정」, 『동양학』 57, 2014; 오대양,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동북아역사재단, 2014.

3) 중국 고고학에서 사전적으로 무덤을 의미하는 묘장은 죽은 자를 매장한 지역과 그 방법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진 곳이다. 「묘(墓)」는 시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고, 「장(葬)」은 시체를 놓아두는 방법이다(張宏彥, 『中國考古學十八講』, 陝西人民出版社, 2008, 2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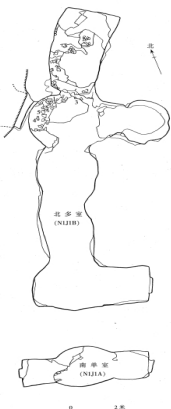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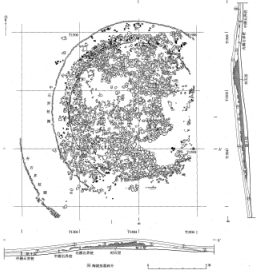
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上中下卷」, 文物出版社, 2012.

5) 徐子峰, 「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 『中央民族大學學報』 2, 2005.

6) Annemarie de waal Macmillan, 『Religion and Culture』, Macmillan, 1968, pp. 235~236.

## II. 牛河梁 유적

### 1. 건축지

| 제1지점                                                                              | 제2지점                                                                              | 제5지점                                                                              | 제13지점                                                                              |
|-----------------------------------------------------------------------------------|-----------------------------------------------------------------------------------|-----------------------------------------------------------------------------------|------------------------------------------------------------------------------------|
|  |  |  |  |
| 여신묘                                                                               | 삼중원형 제단(A)                                                                        | 방형 제단(B)                                                                          | 피라미드 제단(C)                                                                         |

〈그림 1〉 우하량 건축지

우하량 유적 건축지 구조의 특징과 출토 유물 사용 성격은 주변에서 발견된 적석총들과 구분된다.<sup>7)</sup> 우하량 각기 지점 건축지의 성격을 출토 유물과 사용된 방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제사 건축과 제단(A, B, C, D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sup>8)</sup>

제1지점(N1)의 중심에는 제1호 복합 목조 건축(J1)인 “여신묘” 제사 유적이 있다. 정식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사람 실물 크기의 채색된 여신 두상이 적토 층에서 수습되면서 중국학계와 언론계로부터 집중적인 이목을 받는다. 그 주변에는 일반 건축(J2, J3, J4), 회갱(H2, 3, 4)들이 있다. 제1지점(N1) 출토 유물들의 연구는 “여신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sup>9)</sup> 『우하량 유적 종합발굴보고서』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와 유물의 종류와 사용된 방법에 차이가 있다. 현재 우하량 제1지점 건축지 유적 주변의 발굴이 진행 중이다.<sup>10)</sup>

제2지점(N2)에서 발견된 제단(A형)의 구조는 삼중(三重)원형 제단 형태의 건축지다. 제2지점 적석총 군

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上中下卷』, 文物出版社, 2012,은 편의상 본문에서 『우하량 유적 종합발굴보고서』라고 표기하겠다.

8) 제단(D형)의 경우는 일형(日形) 제단으로 추정되는 건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9) 張星德, 『牛河梁遺址“女神廟組”陶器的辨識及其意義』, 『考古』 11, 2018.

10) 제1지점 건축지는 2019년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의 중심에 있다. 돌 제단의 경계에는 “석봉”들이 둘레에 삼중 원형 형태로 줄지어 세워져 있다. 제단의 구조에서 기단 층은 밖에서 안쪽을 향해 일정한 간격의 높이 차이를 보이면서 위를 향해 층층이 쌓여 있다. 백색 규질 석회암으로 된 적석총과는 원자재와 축조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출토 유물로는 원형 테두리의 주변에 순서대로 밀착해서 세워있는 통형기들과 제단의 주변에서 옥기 반제품이 발견된다.<sup>11)</sup>

제5지점(N5)에 있는 두 개의 적석총(N5 Z1, N5 Z2)의 사이에는 방형 구조의 제단(B형)이 있다. 제2지점의 삼중 원형 제단과는 외형 구조가 구분된 형태다. 제5지점의 제단에는 부장품이 없는 이 차장 방식으로 합장된 매장 유구 4개체가 확인된다. 방형 제단 주변에 부장된 성인 인골들을 제단 축조 과정에서 부장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당시에 매장과 함께 의례 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적석총 제단(B형)의 특징적인 사용 성격이다. 제5지점에서 이장과 이차 장의 흔적은 1호 적석총에서는 보이지 않고, 2호 적석총(상층 적석총 단계)에서 이차 합장된 매장 형식이 보인다.<sup>12)</sup>

1992년에 발견된 제13지점(N13) 유적은 대형 제단(C형) 건축이다.<sup>13)</sup> 정식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대형 피라미드 형태를 갖춘 건축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정상에서는 당시 하가점 하층(BC 2000년~BC 1500)의 송풍 구멍으로 용광로에서 구리를 제작하는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화로(도가니)편 들 이 수습되었다. 당시 동북 우하량 지역에서 동을 제련하는 기술과 사용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sup>14)</sup> 그러나 교란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우하량 유적의 연대설정과 적석총의 축조 목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제2지점 5호 적석총(추정 제단(D형) 건축)의 제단 구조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sup>15)</sup> 방형 적석총의 구조로 남북 길이와 동서 넓이는 차이가 있다. 중간에 있는 돌담 경계의 성격은 남북 양쪽으로 적석총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제2지점 적석총들 중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데, 대규모 매장 시설이나 호혈이 있는 묘장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출토 유물로는 통형기 편들과 소량의 인체 골격들이 남북에서 확인된다. 내부에 사용된 원 석재의 크기와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인체 골격들이 출토된 상태를 축조 과정에서의 인명 피해나 자연사로 보기는 어렵다. 매장 방법과 이와 관련된 제사 흔적들의 출현은 그것을 사용한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우하량 각 지점 적석총의 묘역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건축지의 특징적인 성격을 출토 유물과 축조된 방법, 사용된 목적 등을 중심으로 제사 건축과 제단(삼중 원형, 방형, 일형, 피라미드형)으로 구분해



〈그림 2〉 제2지점 일형 제단 건축

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a, 위의 책, 137~138쪽.

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2012, 中卷.

1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中國人民大學曆史學院, 「2014年牛河梁遺址系統性區域考古調查研究」, 『華夏考古』 3, 2015.

14) 李延燧, 韓汝紛, 「遼寧省凌源縣牛河梁出土的爐壁研究」, 『有色金屬』 3, 2000, 81~83쪽.

15) 원중호, 2019, 『中國遼寧省積石塚變遷 過程研究』, 인하대 박사 논문, 94~98쪽.

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하량의 제사 건축과 서로 다른 형태의 제단 흔적들의 출현은 그것을 공동으로 축조하며 자유롭게 구성원들과 공유한 특징적인 사회집단의 존재를 드러낸다.

## 2. 적석총

우하량 적석총의 구조와 묘장<sup>16)</sup> 형식의 존재는 건축지와 구분된다. 적석총 유적의 외형 구조는 크게 원형과 방형이다.<sup>17)</sup>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묘장 형식(토갱묘, 석관묘, 무광(無曠)묘, 석광(石曠)묘들이 발견된다. 묘장 형식의 특징인 매장 시설(대형 무덤), 제단(제2, 5지점), 제사 갯(제5, 16지점), 회갱(제2, 5, 16지점), 묘장의 주변 석상 건축(제3지점), 돌 우물(제16지점), 환호(제3, 5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 <표 1> 참고.

우하량 적석총의 성격은 사체(死體) 매장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순 매장 구역인 묘지가 사용인 집단의 유적 활용 방법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sup>18)</sup> 전체적인 적석총 유적들의 성격이 대규모 집단의 무덤 중심 제사 유적으로 급진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내부 묘장 분포 범위와 적석총 묘역 내부 건축물들의 인위적 특징의 차이가 크다.

<표 1> 牛河梁 적석총의 총체 구조와 묘장 형식

| 적석총의 총체 |       |       |       | 묘장    |     |    |    |                   |                    |                    |
|---------|-------|-------|-------|-------|-----|----|----|-------------------|--------------------|--------------------|
| 원형      |       | 방형    |       | 토갱묘   | 석관묘 |    |    |                   | 무광묘 <sup>19)</sup> | 석광묘 <sup>20)</sup> |
| 단일 묘장   | 다수 묘장 | 단일 묘장 | 다수 묘장 | 토갱/토광 | 입석  | 평석 | 제단 | 석상 <sup>21)</sup> | 방치 묘               | 석광/석혈              |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발견된 묘장의 형식을 크게 돌로 덮은 토갱묘와 석관묘, 석곽묘, 묘혈이 없는 무광묘로 보지만, 일부 발굴보고서(2012년 이전 발표)에서는 세부적으로 적석묘와 석상(箱)묘, 석갑(匣)묘, 토갱묘, 석판묘, 석관묘, 토갱식 수혈 석관묘, 석곽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했다. 최근 적석총 내부의 홍산문화 무덤

16) 중국 동북 지역 홍산문화(BC 4500~BC 2900 전후)의 돌무덤 구조인 우하량 적석총에는 시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와 그것을 놓아두는 방식(방법)이 확연하게 드러난 묘장(墓葬)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덤과 묘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17) 王闢, 「試論我國東北地區史前時期的積石塚墓」, 遼寧大學 提供資料, 2016.

18) 趙寶福, 白玉川, 「從居址到墓地: 紅山文化牛河梁遺址的時代變遷與功能轉變」,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2016.

19) 이정규 외(2019:)는 무광묘를 무시설 묘로 번역한다. 그러나 매장 방법을 고려할 때 사체를 방치(放置)해 둔 방치 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유사 매장 방법에서 부장품이 발견되는 점을 보면 일정한 형태의 의례가 행해진 매장 방법이다.

20) 석광(石曠)의 경우 부식된 기반암을 걷어 내고 조성한 묘혈들로 내부에 돌로 된 매장 도구가 보이지만, 묘실의 깊이가 낮은 지면 위에 돌로 매장 도구를 만든 형태다. 반면 석혈묘의 경우 단단한 기반암을 불을 사용하여 뚫은 묘혈로 제작 방법과 택지 선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21) 석상(石箱)의 경우 특징적인 석관묘 형태로 고정된 매장 시설(대형 무덤)과는 구분된 형태다. 무덤의 속성상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의 석상묘(石箱墓)와 유사하지만, 형태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석관묘의 형태가 발견된 것은 대만 신석기 시대의 석관묘(卑南 유적)와 유사하지만, 소수이고 형태가 불투명해 제외한다. 제5지점 2호 적석총에서는 매장 방식이 불투명한 도관묘(陶棺墓) 1기가 확인되었지만, 무덤 속성과 부장품의 차이로 제외하였다. 부장된 인골의 나이가 다른 묘주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옥기 부장품으로는 곤충 형상인 蠅(蠅) 1점이 발견되었다.

형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논문과 논저가 정리·발표되었다.<sup>22)</sup> 국내에서도 2012년 『우하량 유적 종합발굴보고서』 발표 이후 관련 연구는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중국과 한국 전공자들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홍산문화의 특징적인 매장 방법인 적석총에 관해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일일이 연구 결과를 비교해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 중국 학자가 바라보는 적석총 97기의 묘장(홍산문화 무덤 84기) 형식 분류에 관한 의견들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우하량 적석총 발굴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장품 출토 맥락에 대한 비교·분석보다 부장품(원자재)에 관한 신학(神學)적 연구가 강조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적석총과 축조사회가 당시 홍산문화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격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구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출토 유물과 유적의 성격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견해차다.<sup>24)</sup>

일반적으로, 홍산문화 적석총의 형식 분류 방안의 기초는 적석총 내부 묘실의 구조와 규모, 옥기 부장 양상에 따라 중심 대묘, 대계 식 묘, 갑 류 석관묘, 을류 석관묘, 부속 묘의 5개 형식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 간에는 최상위에서 하위 등급으로의 단계성이 존재하는데 간략한 석관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발전된다. 대략 2단계에 걸친 축조 과정과 변화 과정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석총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 위를 흙과 돌을 쌓아서 덮었다는 유사성이 있지만, 발견된 이러한 매장 형식의 크기와 위치, 내부 묘실 구조는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중요한 매장 시설의 경우 봉토를 한 후에 다시 돌을 쌓았다는 관점도 있지만, 대부분 묘장의 묘실을 조성하거나 과정에서 돌, 판석을 사용하였다.<sup>25)</sup>

최근에는 국내에서 우하량 적석총 유적들에서 발견된 96기 무덤의 38%인 옥기 부장 무덤(37기)을 중심으로 옥기 부장 무덤 속성과 매장 형식에 관한 특징적인 분석과 함께 우하량 후기 적석총 무덤의 형식 분류가 이루어졌다.<sup>26)</sup>

그러나 매장 방법이 아닌 묘장 형식을 통해 적석총이 축조된 성격과 옥 재질 부장품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적석총에서 발견된 옥 공구와 장신구의 조합 그 자체도 특징적인 매장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적석총 내부에 주로 석관묘가 발견되었지만, 묘실 구조가 특징적인 돌로 쌓은 모든 무덤을 석관묘로 보기는 어렵다. 한 예로 매장 시설은 그 규모와 구조상 자의적인 무덤 택지와 묘실 내부 구조 설정, 사체 처리와 일련의 의례 행위가 모두 가능한 특징적인 묘장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매장 시설과는 사회 영향이 구분되지만, 시신과 부장품이 지면 위에 방치된 사체 처리 과정에도 의례 행위는 존재한다.

대부분의 매장 방법에 의례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지역에 묘혈을 파서 고정된 대규모 매장 시설과는 구분되게 얇은 판석으로 묘벽의 동서남북이 조성된 석상묘는 이동과 사체 처리가 자유로운 홍산문화 적석총의 특징적인 매장 방법이다.<sup>27)</sup>

22) 劉國祥, 『紅山文化研究 上下』, 科學出版社, 2015.

郭大順, 『郭大順 考古學 論文集』, 科學出版社, 2017.

23) 김정열, 「홍산 문화, 현상과 쟁점」, 『韓國上古史學報』 96, 한국상고사학회, 2017.

24) 趙賓福·白玉川, 앞의 논문, 2016, 132~134쪽.

25) 郭大順, 「中華五千年文明的象征 - 牛河梁紅山文化 壇廟塚」, 『牛河梁紅山文化遺址與玉器精粹』, 文物出版社, 1997.

26) 이청규·우명하,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2019, 9~11쪽.

그러나 적석총에서 발견된 “석상 무덤이나 사체방치 묘”는 특징적인 지역 환경의 사회에 존재하는 매장 관습이다. 돌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다양한 매장 의례 행위와 특징적인 매장 관습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곳이 죽은 자를 위해서만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28)</sup>

이상으로 우하량 적석총이 축조되고, 일정 기간 지속한 원인을 매장 방법과 매장 관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 적석총의 축조 목적을 원시 제의 건축의 존재와 대표적인 출토 유물인 옥기 부장품 사용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 Ⅲ. 牛河梁 적석총의 축조 목적 分析

#### 1. 원시 제의 건축의 매장 방법

중국 문화혁명 이후, 동북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유적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신석기 후기 적석총들이 많이 발견된다. 우하량 유적은 건축 지와 원시 제의 흔적들이 발견된 적석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적군으로 1983년 발굴이 본격화되었고, 2003년에 공식적으로 종결됐다.<sup>29)</sup>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홍산문화(BC 4500~BC 2900)<sup>30)</sup>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 구조와 경제적 성격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하량 적석총의 편년과 사회적 성격 변화에 관련된 연구와 방법론 자료들이 발표됐다. 일부 학자는 당시 적석총 축조 사회 경제 구조의 경중을 밝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정 활동(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전 양상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자연환경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생계 경제는, 농경뿐만 아니라 수렵, 목축, 어로, 채집 등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체 처리 및 원시 제의 장소인 우하량 적석총 묘장에서는 외래문화와 교류한 흔적이 토착 사회의 매장 방법의 변화 과정의 영향으로 보이는 건축 제작 기술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홍산문화 후기·발전기에는 두드러진 옥기 부장품 이외에도 원시 제의 행위가 공존한다. 적석총 위나 돌, 담 경계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의 매립 위치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적석총 기능 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유로운 교류 여부와 의례 행위를 책임진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이다. 구체적인 매장 주체 부와 매장의례 부가 확인되지 않는 돌무덤인 적석총이 축조된 목적을 전체 집단의 내부 구축을 전제로 하는 거대 권력의 출현(왕릉, 귀족 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7) 韓英, 「略論紅山文化的埋葬習俗」, 『科技信息(學術研究)』 35, 2007.

28) 몽골 수렵 사회에서 사체를 버려두는 것은 육체를 동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자(死者)가 죽은 후 그 자신과 동물이 생존에 필요한 남겨진 구성원들의 죄를 씻는 것이다.

2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논문, 2012b, 中卷.

30) 원중호, 앞의 논문, 2019b, 316쪽.

선사 시대의 교류 목적이 이주나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위와 같은 교류의 흔적은 당시 이곳에서 일정한 원시종교적 의례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잉여 목적에 얽매이거나 제삼자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이루어진 자유로운 교류는 그 당시 사회 단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sup>31)</sup>

적석총 사회 묘장의 성격 변화는 원시 제의 건축과 관련 의례가 병행된 매장 방법 특징들의 변화 양상을 통해 확인된다. 제작 기술과 지역적 성격이 두드러진 옥기 출토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시 대규모 집단의 제사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되지만, 적석총 총체와 묘장의 특징은 묘장의 제의적 성격과 묘실 구조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sup>32)</sup> <표 2> 참고.

〈표 2〉 牛河梁 적석총 총체와 묘장의 특징

| 총체(塚體)의 특징                                                    | 묘장(墓葬)의 특징                                            |
|---------------------------------------------------------------|-------------------------------------------------------|
| 원형과 방형 총체 내부 묘장을 보면 서로 다른 형태의 묘실 구조가 발견된다.                    | 총체와 묘장에서 사용된 원자재 재질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
| 원형과 방형 총체 내부의 지상, 지하, 지면에서 사체를 처리한 흔적이 발견된다.                  | 서로 다른 거리와 위치에서 발견된 묘장은 방위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
| 원형이나 방형 두 총체에서는 다양한 묘장 형식과 제사 활동에 관련된 시설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 두 총체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묘장과 서로 다른 제의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다.            |
| 각 지점(제2, 5, 3, 16지점)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제의 시설(施設)이 발견된다.             | 묘장과 서로 다른 형태의 매장 제의 시설 존재는 당시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

그러나 홍산문화 사회의 특징적인 생활경제 환경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원시 제의 건축 구조의 사체 처리 장소인 적석총의 축조 목적과 변화가 고대국가 문명 기원의 상징적 성격과 생사여탈을 책임지는 권위적인 세습 집단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최근 다양한 홍산문화 묘장 주변 제의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대규모 적석총 축조 집단의 권위적인 묘주의 세습적인 신분보다는 그들이 생전에 소속된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갖고 있던 사회적 영향력 차이에 관한 규명이 필요해졌다.

우하량 유적 적석총 원시 제의 건축 축조 집단들의 분포 범위는 넓다. 최근에는 특징적인 매장 방법과 옥석 부장품, 제사용 도구를 일정 부분 공유한 해양 문화권과의 상호관계 구축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제2지점에서는 천공된 조가비 장신구 3점이 발견되었다. 조가비가 적석총에서 부장품으로 사용됐다면, 그것이 출현한 시기와 제작 기능의 변화 양상은 당시 축조인들의 중요한 생활경제 능력의 흔적이다. 비록, 문화층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홍산문화 연대 편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물이다.<sup>33)</sup>

신석기 시대 후기의 적석총 연구는 매장 방법과 내부 묘장에서 행해진 원시 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 구조와 구성원 집단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적인 원시 제의 건축을 통해 당시의

31) 李仰松, 『民族考古學論文集』, 科學出版社, 1998, 93~95쪽.

32) 劉國祥,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 博士 論文, 2015, 492~495쪽.

33) 樊豐實, 「中國文明起源研究的鴻篇力作—讀《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考古』 1, 2015.

정신 관념인 사후 세계관을 분석한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등의 지역에서 집단묘에 관련된 실질적인 매장 관습(후장과 박장)과 관련 제도가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된 것은 자작농(farmer)과 소작농(peasant) 경제 체제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나서이다. 한편 동북아시아 한반도 지역에서도 구석기 시대부터 사후에 부장하는 풍습이 존재하였다. 상장의식과 관련된 매장 절차는 생자가 죽은 자를 자신과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의례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된다.<sup>34)</sup>

우하량 제5지점 유적에서는 대규모 토착 사회의 제사 유적으로 적석총이 축조된 것을 재고하게 하는 특징적인 유구들이 발견된다. 발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적에서 발견된 회갱(49기)에서는 석기 도구 사용인 집단의 이동에 의한 일시 거주 흔적(초기 적석총 원시 제의 건축)으로 초기 적석총의 축조 목적을 재고할 수 있는 하층 생활 유존들이 발견되었다. 회갱 내부 구덩이에서는 일반 생활용 토기와 산화된 동물 뼈, 석기(세 석기, 돌날)들이 발견된다. 초기 묘(墓) 매립 대상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회갱 주변에서 거주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회갱 내부에서 행한 초기 의례 행위는 출토된 유물과 유구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적석총 묘역 내부 회갱에서 주로 발견된 다양한 동물 뼈 잔재는 초기 매장 흔적이다. “기(棄)”와 “매(埋)”, “장(葬)”의 의미는 갑골문에서 구분된다. “매(埋)”의 이체자는 매(薶)다. “매(埋)”의 최초 의미에는 인간 시체가 아닌 기르는 가축(돼지 등)과 물건들이 포함된다.<sup>35)</sup>

제사 갱의 경우는 무덤 주변 출토 위치와 유구 주변과 바닥에 불을 사용한 흔적을 미루어 의례 행위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牛河梁 적석총에 있는 매장 시설(일반 무덤과 옥기 무덤, 대형 석혈 무덤)에서 발견된 사구통형 옥기(마제형 옥고)가 최초로 紅山文化 후기의 반랍산 묘지 적석총 원형 제사 갱에서 발견된다. 사체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물 출토의 맥락상 부장된 동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폐기 장소보다는 원시 의례적 무덤 속성이 있고, 돌날의 제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얇은 조각들도 지표에서 수습된다. 이러한 석 재료의 원자재들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세석기 제작에 사용된 것과 같다. 홍산문화 후기의 북방 지역 석기 도구 사용인 집단에서는 거실장 유적(홍릉와, 합민합합 등)이 확인된 것을 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 유구인 우하량 적석총 제5지점 전기(적석총 하층 아래의 생활 유존에서 보이는 초기 적석총 원시 제의 건축지)에서도 일시적인 거주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우하량 적석총 연구에서 인류학과 역사학, 민속학 관점을 통해 보충한 것은 “물질 자료”의 복원 통해 당시 문화를 복원하는 고고학적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적석총의 매장 도구는 그 원재료가 돌이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기 위해 돌로 된 매장 도구(棺·槨)를 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부담 없는 생산 공구 제작의 원재료이며 자신들의 사후에도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들이 돌을 숭배한 흔적이다.

적석총들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 흔적인 중원 지역이나 북방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함께 이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들이 존재한다. 50km<sup>2</sup>가 넘는 대규모 제사 유적군을 주체적으로 관장한 특정 집단 세력이

34) 이상균, 앞의 논문, 2000.

35) 陰法魯, 許樹安, 『中國古代文化史: 2』, 北京大學出版, 1991, 120~122쪽.

하나였고, 그들이 외부 문화적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병행해서 수행하였는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단언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우하량 제 지점 적석총의 축조와 소멸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초기 적석총의 축조 목적은 당시 사회 경제 구조로 볼 때 일시 거주가 가능한 원시 제의 건축지다. 우하량 적석총 묘역에서 이루어진 원시 제의 행위가 서로 다른 소규모 집단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유적의 성격과 축조 목적도 점진적으로 바뀌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하량 적석총의 원시 제의 건축에서 행해진 상장 의례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적석총 내부의 묘장 자료는 생자와 사자를 위한 특징적인 의례 장소로 홍산문화 복합사회의 매장 의례 방법이다. 특징적인 의례 흔적이 행해진 묘장 자료는 당시 사회의 매장 관습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도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생산, 생활, 풍속, 종교, 관념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반영한다.<sup>36)</sup>

우하량 유적에서는 다른 주변 紅山 諸 文化 유적들보다 농경·굴지 행위에 관련된 유물(석 부와 석 마 봉 등)은 적게 발견되었지만, 도구 제작 공정에서 생겨난 석 재료가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석기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제16지점에서 발견된 소량의 凹底 삼각형 석촉은 그 출토 맥락상 묘주 생전에 수렵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 제작된 것으로 당시 서로 다른 북방과 동북의 생존환경 조건에 적응하며 생활하던 소규모 집단들의 교류 흔적이다.<sup>37)</sup>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적석총의 축조 목적에 관련된 소규모 집단들의 새로운 매장 방법의 변화가 확인되었다.<sup>38)</sup>

제2지점 4호 충 하층 적석총 단계의 “통형기 묘장”과 상층 적석총 단계의 “옥기 묘장”이다. 전자는 그 구조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자의 영혼이 안치된 묘장 주변에 “무구무저” 형식의 통형 토기를 배열한 그 자체로 원시종교와 관련된 매장의 의례적 건축 성격을 갖는다. 후자는 인간의 시체를 매장한 매장 시설 내부와 매장 공구 주변에서 생자들이 사자를 위해 행한 매장의례행위의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의에 사용한 매개 도구의 흔적이다. 제2지점 4호 충 통형기 묘장의 채도 옹은 그 크기와 동체 부에 있는 무늬로 보아 당시 이러한 도구(비 생활용 도구)를 생전과 사후에 이중으로 소유했던 특정 인물의 존재와 그들이 행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영향력의 흔적을 생각하게 하는 실증적인 유물이다.

통형기 묘장과 옥기 묘장에서는 서로 다른 매장 의례 행위의 변화가 확인된다. 그것은 당시 대규모 공동사회집단의 위계 구조를 표증 하기보다는 특징적인 의례 행위를 동반하는 서로 다른 소규모 집단들의 매장 방법 변화다.<sup>39)</sup>

원시 제의 건축을 통해 분석한 적석총의 축조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진적으로 붕괴(Collapse)<sup>40)</sup>

36) 熊增龍, 「紅山文化 墓葬 埋葬 特點 及 相關 問題研究」, 『北方文物』 4, 2008.

37) 李恭篤,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 『考古』 6, 1986.

38) 樂豐實, 「中國文明起源研究的鴻篇力作—讀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考古』 1, 2015.

39) 하층 적석총 단계(전기 적석총) “筒形器 묘장”과 상층 적석총 단계(후기 적석총) “玉器 묘장”은 층위상으로 구분된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第二地點四號塚筒形器墓的發掘」, 『文物』 8, 1997.

되지 않고, 옥기 제작·사용인 집단과 공존한 우하량 유적의 소규모 적석총의 축조 목적은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변화됐다. 둘째 일정 규모의 매장 시설 축조는 인력 동원이 필요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원시 제의 건축의 축조 목적은 특정 권위 집단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산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주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일반 구성원들의 공감대에 의한 결과다. 우하량 적석총들과 내부 매장 시설들은 단조롭고, 자유롭게 축조되었다. 초기 적석총의 축조 목적이 전체 집단 내부의 세습적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대 권력(왕릉, 귀족 묘)이나 문명사회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 제의 건축의 존재와도 관련된 옥기 부장품을 생전에 제작·사용하거나 관리했던 인물들이 갖고 있던 특징적인 사회적 영향력의 실체는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들(인류학, 종교학, 역사학)에 대한 보충을 통해 아래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 2. 출토 유물-부장품 옥기 사용자를 중심으로 -

우하량 적석총의 출토 유물에서는 옥기를 제작하거나 사용하고 관리한 특징적인 사용자 집단의 존재 흔적이 발견된다. 우하량 적석총 옥기는 중국 신석기 시대 후기 사회의 정신문화의 흔적이다. 홍산문화 적석총에서 출토된 부장품 옥기<sup>41)</sup>는 생전에 그것을 제작하고 사용·관리한 묘주(墓主)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매장 관습이다.

대부분의 부장품 옥기가 발견된 제2지점의 제단의 구조에서는 정신문화 흔적이 발견된다. 제단의 토대는 담홍색이고, 그 위에서 발견된 출토 유물인 통형기의 색은 붉은색이다. 원시 신앙 숭배 행위에서는 색에 대한 선택도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단 토대와 출토 유물 색이 서로 유사한 것은 인간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원시종교의 세계관을 반영한다.<sup>42)</sup>

종교 직능자의 출현<sup>43)</sup>과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에 대한 일반론을 통해 우하량 적석총 부장품 옥기 사용자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들의 종류와 사회적 성격은 석기 시대(구석기 후기, 신석기, 청동기) 이러한 인물들이 출현한 배경과 그 전후 과정을 고고학과 관련된 흔적과 문헌적 분석 자료, 민속학 중심의 인류학, 종교학적 방법론 지식을 통해 정의할 수 있다.<sup>44)</sup>

종교 직능자는 전업화 된 종교 과업에 관련된 활동행위가 차지한 비중과 이러한 영향력 존재 여부에 따라

40) Joseph Tainter, 『The Collapse of Complex Societies(New Studie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41) 홍산문화의 부장품 옥기는 188점이다. 이 중 78.2%인 147점이 牛河梁 유적에서 발견된다. 제2지점에서는 牛河梁 부장품 옥기의 57%가 넘는 84점이 발견되었다. 周曉晶, 『紅山文化 玉器 研究』, 吉林大學博士, 2014. 전체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옥기의 상당수는 현재 미공개된 상태다(田家溝, 哈民忙哈 등). 牛河梁 유적에서 확인된 옥기의 수치는 183점이다(劉國祥, 『紅山文化研究 下』, 科學出版社, 2015, 515쪽).

42) E. E. 埃文斯·普理查德, 孫尚揚譯, 『原始宗教理論』, 商務印書館, 2001.

E. E. Evans-pritchard, 2004,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pp. 1~20.

43) 이러한 인물의 출현은 크게 후기 구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animism)에 관련된 의례 행위를 주관한 인물과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식량 생산 단계인 신석기 시대의 사회적 필요로 출현한 인물로 구분된다.

44) 서영대, 『韓國古代의 宗教職能者』, 『韓國古代史研究』 12, 韓國古代史學會, 1997.

‘시간제’(part time)와 ‘직업적(전업)’(full time) 종교 직능자(specialist)로 구분된다.<sup>45)</sup>

당시 이들이 갖는 특징적인 사회적 기능을 6가지(정치 질서 유지, 자연질서의 유지를 통한 풍요 유지, 기존의 관습 및 가치 체계 옹호, 공동체 의식의 뒷받침, 여론의 반영, 개인의 생존을 도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로 구분된 지역과 환경 조건에서 존재한 종교 직능자들의 능력은 당시 사회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존립과 발전에 중심점이 되는 특징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중국 학자들의 동북 지역 소수민족 종교 직능자들에 관한 의견을 검토해보자. 잘 알려진 대로 종교가 처음 생겨난 이후에 행해진 종교 활동은 매우 간단하여 전문인(specialist)이 주관하는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교가 발달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늘어나고, 제사, 굿, 점술 등 다양한 종류의 무교 활동이 행해졌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충실한 중국 민속학자에 의하면 오래된 샤머니즘(Shamanism)의 한 형태로 원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빌고 바라는 기구(祈求) 무술(巫術)이 후대에 제사 활동으로 발달했다.

원시종교가 형성된 초기 단계에는 무사(巫師)가 없었지만, 모든 씨족 구성원 자신이 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자였다고 하였다. 믿음(숭배심)이 깊은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신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갖추거나, 제사를 지냈고, 무술(巫術) 등을 하였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안위와 실질적인 생존 활동에 더욱 도움을 주는 경험 많은 연장자나 씨족 장들이 주관하는 종교적 제사와 무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행위에 자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동북 지역의 무사(巫師)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생기는 데, 무사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에서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sup>46)</sup>

우하량 옥기 부장품 사용자는 생전에 특징적인 출토 유물(부장품)을 제작·관리하고 사용한 종교 직능자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점은 매장 방법과 옥기 부장품 유물의 속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홍산문화 복합사회의 특징적인 정신 문화적 산물에 의해 그들이 가진 경제적 자립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하량 옥기 부장품 사용자는 이들(종교 직능자)과 유사한 성격의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의 종교 과업에 관련된 활동행위가 차지한 비중과 이러한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농경 활동이라는 경제 행위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역 환경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연을 극복하며 생존한 복합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종교 직능자들이 그들에게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불투명하다. 모든 종교 직능자가 선출직이었으면 가능했겠지만, 적석총의 매장 방법과 옥기 부장품 유물의 속성에 드러난 경제적 자립도의 차이로 미루어 같은 성격(구성원의 정신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이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같은 인물이 장기간 특정한 이유 없이 공존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들과는 구분되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사체 처리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sup>47)</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간들에 의해 무덤 축조되었고 옥기 사용자들에 의해 제사가 행해진 적석총들에서 보이는 일부 건축 시설에는 두 가지 정신문화 흔적이

45) Annemarie de waal Macmillan, 앞의 책, 1968, p. 236.

46) 宋兆麟, 『巫与巫術』, 四川民族出版社, 1989, 43~46쪽.

47) 영장류와 구분되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는 “공격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고 있다. 첫째, 당시 이것을 축조하고 사용한 집단의 서로 다른 의례행위 현상의 특징인 생존 흔적의 차이이다. 둘째, 서로 다른 소규모 집단들의 존재와 그들의 개별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제2지점에 가장 인접한 단일 적석총인 제3지점 상층 적석총 단계 매장 형식의 주변에는 축조 과정에 서의 인공적 기술과 제작 규범이 보이지만, 무덤이나 제단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건축 시설(N3 M1)이 발견된다.<sup>48)</sup>

제16지점 적석총의 내부 대형 석혈 무덤의 위에서도 건축물이 발견된다. 매장 시설이나 제단의 속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돌 우물 석정(石井)으로 제작된 용도가 밝혀졌고, 출토된 위치상 원시 제의에 관련된 석조 건축물이다.<sup>49)</sup> 제16지점 성자산 묘지에서 발견된 대규모 석혈 묘장은 매장 방법과 의례가 행해진 장소로서 무덤의 위치와 구조가 기타 적석총 군의 옥기 묘장들과 구분된다. 성자산 대형석혈묘(=中心大墓)는, 그 내부에서 확인된 부장품의 규격과 제작 기술, 미적 특징은 다른 유사 묘장의 출토 유물들과 구분되고 같은 지면 제사 방법이 발견된 대능하 호두구<sup>50)</sup>나 백음장한, 남태자, 반랍 묘지 홍산문화 적석총들과도 구분된다.

제3, 16지점 적석총과 적석총 군(群)인 제2, 5지점이 축조된 목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면 특징적인 건축물 및 부장품 사용인의 구분된다. 우하량의 적석총과 적석총 군들의 구조와 옥기 부장품 출토 유물의 특징은 적석총 유적군 내부에서 지역적 특색을 갖는다.

대형 무덤들과 일반 묘장은 무덤 구조, 매장 방법과 출토 유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매장 방법을 드러내지만, 그것 이외에도 적석총 사회의 경제, 생산, 생활, 습속, 종교, 관념 등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적인 사회 현상의 존재가 전체 집단의 내부 구축을 전제로 하는 거대 세습 권력의 출현과 영향력의 역학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51)</sup>

우하량 적석총 부장품 옥기와 옥기 부장묘의 경우 다양한 무덤 속성에 관한 의견들이 국내에도 존재하지만, 부장품 주변에서 사체가 처리된 흔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근본적으로 생자가 사후 인물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용된 옥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특정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관리한 특정 인물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그것을 소유하거나 제작·사용하면서 부차적으로 얻게 된 사회적 영향력(정신적 권력<sup>52)</sup>)은 일반 구성원들과는 구분된다.

전체 구성원 개개인들을 위해 공유되던 사자(死者)와 생자(生者)의 매개행위를 담당한 인물의 특징적인 능력(정신적 권력)이 실질적인 세습 권력의 소유자인 특정 인물(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그에 의해 경제적으로 귀속되면서 점진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자(王者) 주변에서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과 비중을 갖는 인물로 변화된다.<sup>53)</sup>

48) 魏凡, 「牛河梁红山文化第三地点积石冢石棺墓」, 『辽海文物学刊』 1, 1994.

4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牛河梁第十六地點紅山文化積石塚中心大墓發掘簡報」, 『文物』 10, 2008.

50) 대능하 유역의 백음장한, 胡頭溝, 남태자 적석총 등에 관한 비교·분석은 반랍산 묘지 적석총에 관한 종합발굴보고서가 발간되면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51) 呂昕娛, 「紅山文化經濟形態述論」, 『赤峰學院學報』 8, 2009.

52) 눈에 보이지 않는 Power(힘)은 종교적 성격의 정신문화 현상이나 행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일정 단계에 오른 사회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표방하는 로마 귀족들로 보기는 어렵다. 옥기를 부장품으로 사용한 홍산문화 적석총 사용인 사회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억압이나 폭력, 전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일반 구성원들이 그들과 사회적 역할이 구분된 인물(옥기 제작·관리·사용자)들에게 불만을 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세습되지 않고,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확보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비중은 장기간 지속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다. 한 예로 중국 동북 지역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는 숫자나 사회적 역할, 영향력이 구분된다. 일부 집단에서는 관련 인물 다수가 존재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수령의 역할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다른 집단과 전쟁을 할 때는 한정적으로 군대를 통솔하기도 한다. 이들 안에 원시종교적 특징이 내포된 것은 확실하지만, 샤머니즘 집행자인 샤먼(Shaman)<sup>54)</sup>과 구분된 샤먼 무사(薩滿巫師)들의 실질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속성이 후대에도 보이는, 즉 박수(巫覡)·무당(女巫) 등과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대 종교 직능인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정의하고, 관련된 인물의 출현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고고학계에서 확인된 원시종교 발굴 자료들을 관련 역사 문헌 자료들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 고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최근 대량의 원시종교에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 동북아 지역의 제사 유적과 그 유적에 존재한 종교 직능인 집단에 관련된 연구에 큰 영향을 준다.<sup>55)</sup> 현재 원시종교 사회에서 특정 행위 집행자들이 갖는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은 종교의 출현과 기능이 같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고대 종교 직능자들의 출현 배경과 과정, 특히 그들이 존재했던 사회에서의 기능적 특수성들이 일정 부분 밝혀지면서 고대 이전의 유사 인물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하량 적석총의 축조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정신문화 현상들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자의와 타의에 의해 사체 처리와 관련된 의례 행위 흔적들이 구분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생존행위는 문화 현상이다.

적석총이 축조된 사회 구성원들의 중요한 정신문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서로 다른 생존환경 조건에서 발생했다. 둘째, 자의에 의해 발생한 문화 현상은 특정 집단에 융화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셋째, 타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생존에 관련된 문화 형상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존속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융합과 종속 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생존환경 조건에서 개인들의 특징적인 생존 조건에 의해 발생한 문화적 현상은 서로 공유되거나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우하량 적석총에서는 특징적인 부장품 옥기와 원시적 정신문화 속성의 제의에 사용된 용기, 무덤, 사체 처리에 관련된 유구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흔적은 서로 다른 소규모 사회집단들의 자의적 문화 현상이다.

제2, 3, 5, 16지점 적석총 내부에서는 사체 처리 및 서로 다른 규모의 무덤 제사가 행해졌다. 통계분석 자

53) 張光直, 『考古人類學隨筆』, 聯經, 1995.

54) 샤먼의 사전적 의미는 샤머니즘 집행자로 신령·정령 등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특징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55) 서영대, 앞의 논문, 1997, 227~230쪽.

료를 통해 확인된 특징적인 적석총 무덤 형식의 외형 구조적 속성과 대부분 묘실(墓室) 주변에서 발견된 옥기 부장품의 출토 맥락으로 보아 타의에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특징적인 생존환경을 극복하면서 자율적으로 생겨난 장소다. 인위적으로 장소 사용 성격과 옥기 제작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변화된 제16지점 적석총 사회집단의 정신문화적 융화 현상은 출토된 유물에 폭력이나 전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 현상이다. 제16지점 단일 적석총은 초기 청동기(하가점 하층)의 성보(城堡) 아래에 눌러 교란된 유적으로 유구와 출토된 부장품 유물의 속성이 다른 지점 적석총들과 구분되지 만, 전체적으로 유적의 문화적 성격을 단정하려면 관련 유물의 출토 위치가 재고되어야 한다.

일부 학자는 하가점 하층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2008년 중심대묘 발굴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제16지점 발굴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장품이 없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광묘(3기)가 발견되지만, 하층 적석총(전기 적석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적석총 문화층이 두껍지 않다. 셋째, 초기 청동기의 성보(城堡) 아래에 눌러 교란된 유구들 중 대량의 회갱들 내부에서 적석총 출토 부장품(옥기, 통형기 류)이 발견된다. 특히 상층 적석총(후기 적석총)의 축조 목적에서도 사체 처리가 최우선이지만, 제16지점 적석총에서 발견된 중심대묘에서는 주변 적석총 유적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징적인 매장 관습(영구치 등)과 제작 기술로 정제된 부장품들이 발견된다.

『우하량 유적 종합발굴보고서』의 종합고찰에 의하면 제2, 3, 5, 16지점 적석총에서는 제의적 유구와 다양한 종류의 옥기 부장품이 출토된 위치가 확인되었지만, 그 외형 구조의 속성상 특징적인 무덤과 매장 형식, 출토 유물이 발견된 적석총에서 사용된 기능과 비중이 구분된다. 적석총의 축조 목적과 사용된 기능은 종속을 목적으로 특정인들에게 허가된 권력에 의한 반강제적 재분배 행위가 초래한 문화적 현상보다는 특징적인 사체 처리 방법이 무덤에서 행해진 제사의례 행위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해간 것이다.

우하량 적석총 축조 목적의 특징은 소규모 사회집단의 유적 조성 환경과 지역적 성격(혈연, 지역적 특징)이라는 특징적인 문화적 환경,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적석총이 사용된 방법과 축조 목적, 매장 방법의 변화에 비중을 두면서 적석총 축조 중심 인물들이 일정 단계에 오른 사회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회피했다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자기네 권리에 안주하였고, 일반 구성원들에게만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거부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하량 적석총 유적군이 발견된 전체 면적(50km<sup>2</sup>)에 비견되는 주거지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유적군 내부에서 발견된 97기(홍산문화 무덤 84기)를 보면, 방치 무덤이나 제사 건축지, 회갱 등을 일정한 목적의 일시 거주 흔적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한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홍산문화 무덤 84기나 다른 유구들에서 발견된 매장 습속과 의례상의 성격 차이를 보면, 특징적인 돌무덤 구조 적석총 내부에서 발견된 무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석총 내부의 홍산문화 무덤 묘주들을 특징적인 공동체 사회집단의 단일 구성원으로 보는 것은 문제다.

우하량 적석총들의 옥기 사용자에 관해 주목해야 하는 특징은 첫 번째 경제활동과 종교 관련 활동을 병행한 종교 직능자들의 출현 이전 인간의 원시종교적 능력이다. 두 번째는 전업적 종교 직능자의 출현 이후에도 그들과는 사회적 영향력이 구분된 시간제 종교 직능자가 소멸하지 않고 공존했다는 것이다.<sup>56)</sup> 세 번째는 전

문적인 종교집단인 엘리트의 출현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에 의해 이들이 동화되거나 구분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 현상이다. 종교 직능자들이 주관하는 원시종교 의례 활동의 흔적은 동북 지역의 홍산문화 제사 유적들에서 대부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부 유적의 경우 교란된 상태나 유물의 출토 맥락상 그들을 후대 문헌 사료에서 보이는 선출된 종교 직능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사회적 비중과 역할을 갖는 이들 집단이 소멸하지 않고 공존했다면 그들이 수행하던 종교적 과업이 당시 사회 구조나 그들의 생존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동체나 그것을 구성한 개개인들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다양한 신앙적 기능이나 가치관들은 시대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 하나의 같은 종교 신봉 집단에 내재된 원시종교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서 지역의 선진(先秦) 시대 고대인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유전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하량 적석총 축조인들은 현재의 비교적 이른 시기 토착민들로, 그 발전 양상과 주변 지역 거주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chiefdoms 정의에는 엘 만 서비스와는 상반되는 정치-관리를 중시하는 특징적인 개념이 있다.<sup>57)</sup> 경제적 기준에 의해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통제이론의 하나로 사용했다면,<sup>58)</sup> 경제적 재분배를 통한 공동체 사회 중심 관리 체제라는 도시 출현 이전의 특징적인 단계 설정을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가진 공동체 집단 내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paramount chief)의 영향력 아래 형성된 수많은 마을과 사회”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당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전 양상이 크지 않은 이유로 급진적인 자연환경의 변화를 보기도 하지만, 다중경제 사회 구조의 소규모 적석총 집단이 생존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변화하게 된 원인을 농업과 이와 관련된 자연 환경적 조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3년에는 신석기 시대의 우하량 홍산문화의 개체와 후(後) 홍산문화인 소화 연 문화 주민들 사이에 모계(母系)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sup>59)</sup> 일부 학자는 석기 시대 도구(토기, 석기)의 원 제작자와 사용자에 관해 당시 사회 구조의 경제 수준의 표증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유물의 제작과 사용 주체가 과연 남성(MALE)에 국한되어 있었느냐는 점에 주목하면서 민족학 자료와 고고학 유물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사회 구조에서 존재하는 도구(토기, 석기) 생산과 사용의 주체를 통해 선사 시대(Prehistory)의 젠더 사회 경제 구조의 특징을 통해 설명했다.<sup>60)</sup>

홍산문화 적석총 축조사회의 경제활동 비중의 경증을 밝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회의 생계 경제는, 농경뿐만 아니라 수렵, 목축, 어로, 채집 등이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우하량 적석총이 축조된 사회에는 두드러진 옥기 부장품 이외에도 특징적인 매장 의례 행위가 존재한다.

56) 고대 종교 직능자들에 관한 의견인지, 그 이전 신석기 시대의 종교 직능자(원시종교 직능자)들도 이에 포함되는지는 불투명하다.

57) Charles S. Spencer, 「Rethinking of The Chiefdom」, 『Chiefdom in the America』,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onnecticut, 1987, pp. 370~373.

58) ELMAN R. 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Random house, 1968.

59) 原海兵, 朱泓 外, 「牛河梁紅山文化人群的生物考古學探索」, 『邊疆考古研究』 14, 2013, 307~313쪽.

60) Nelson Sarah, M, 「Gender and Archaeology in Coastal East Asia」, 『A Companion to Gender Prehistory』, Wiley-Blackwell, 2013.

적석총의 위나 돌, 담 경계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의 매립 위치로 미루어 당시 적석총 사용인 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유로운 교류와 함께 당시 의례 행위를 책임진 인물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정신적인 권력)이다. 紅山文化 후기의 사회 구조를 대표하는 소규모 사회집단들의 특징적인 정신문화 현상들은 중국 신석기 시대 후기의 고고학문화인 홍산문화 과도기 단계 절대 권력의 존재 여부와 당시 사회 형성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들의 경제적 생존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 Ⅳ. 牛河梁 적석총 축조 목적의 사회적 특징에 대하여

우하량 적석총 축조사회의 특징적인 무덤 구조의 성격상, 옥기 부장 무덤(37기)의 존재는 그 수량보다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은 무덤 매장 방법의 변화와 옥 공구에서 장신구로의 옥기 부장품의 변화 양상이 보이는 데 그 중요성과 비중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하량 홍산문화 적석총이 축조된 시기는 내부 구성원들의 교류 흔적을 중심으로 4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牛河梁 적석총의 축조 이전 시기로 제16지점에서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는 하층 유존 3기 무덤과 제5지점 49기 회갱 중 제5지점 49호 회갱(N5H49)을 제외한 48기 회갱의 내부에서 이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생활 유물 조합이 확인된다. 제2단계는 적석총의 축조가 시작된 전기다. 제3단계는 옥 장신구가 부장된 무덤 속성 변화가 진행된 후기다. 제4단계는 적석총의 축조 목적과 사용 성격이 제의 행위 중심의 매장 시설로 변화된 말기다.

〈표 2〉 牛河梁 적석총 유적의 축조 연대

|      | BC 4500~4000 | BC 4000~3500 | BC 3500~3300                       | BC 3300~2900       |
|------|--------------|--------------|------------------------------------|--------------------|
| 제1단계 | 초기 생활 유적     |              |                                    |                    |
| 제2단계 |              | 전기 적석총       |                                    |                    |
| 제3단계 |              |              | 후기 적석총<br>요서 반랍산 묘지 <sup>61)</sup> |                    |
| 제4단계 |              |              |                                    | 末期<br>제의 중심의 매장 시설 |

61) 현재 최종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유적의 무덤(M4)에서 발견된 인골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BC 3300년 전후로 홍산문화 후기 연대와 부합한다. 牛河梁 적석총의 발원 유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홍산문화 후기의 적석총 군들과 공존한 묘지 유적이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朝陽市龍城區博物館, 「遼寧朝陽市半拉山紅山文化墓地」, 「遼寧朝陽市半拉山紅山文化墓地的發掘」, 『考古』 7, 2017.

우하량 유적 적석총과 당시 사회 구조와의 관계는 다양한 학자의 의견들이 존재한다.<sup>62)</sup> 일반 묘장과 옥기가 부장된 매장 시설<sup>63)</sup>이 발견된 우하량 9기 적석총(총체 7, 제단 2)들은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원형, 방형)들이 모여 조합(多塚) 유적을 이루거나 단독(單塚) 유적으로 발견된다.

우하량 적석총 묘장의 형식은 외형 구조(원형과 방형)에 있는 묘장의 다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제2지점과 제5지점 적석총에서는 제단을 포함한 다수의 묘장이 확인된다.<sup>64)</sup> 적석총의 분포 위치와 수는 산등성이마다 다르다. 산봉우리에 한 개가 있는 예도 있지만, 2개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제3지점과 제16지점은 단일 매장 시설이다. 적석총의 형식은 내부에서 발견된 매장 시설의 종류와 형식, 제의건축인 제단의 존재 여부, 환호, 제사 갯 등의 특징으로 구분된다.

우하량 적석총에서 발견된 묘장 들은 두 향과 같은 매장 관습과 부장품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적석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하천 부근의 편평한 산등성이 위다. 적석총은 방형 혹은 원형 구조로 단일 묘장과 다수 묘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은 주로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묘실 벽은 석판으로 세워져 쌓았다.

매장 시설(대형 무덤)과 묘장은 묘실의 깊이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체와 부장품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모두 무덤 형식이다.

우하량 적석총의 매장 시설은 대부분 석관묘로 무덤이 제작된 형식과 내부 구조도 다양하다. 적석총 내부에서 발견된 무광묘(無墳墓)는 사체와 부장품이 외부 지면으로 드러나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교류의 근거로 보이는 매장 방법이다. 특히 석관을 사용한 소형의 석상(石箱) 형태 매장 형식은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사체의 처리 방법은 양신 직 지장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전입과 전출된 이차 장 형식도 확인된다. 적석총에서 발견된 매장 시설은 그 무덤 구조와 형식에서 일반 묘장과 차이를 보인다. 그 주변의 중, 소형 무덤과 비교해서 대형 무덤이 전체적인 구조와 부장품의 출토 양에서 돋보이지만, 적석총에서는 지표면에 사체와 부장품이 드러난 매장 형식과 같은 특징적인 적석총 매장 방법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장행위가 존재했다. 적석총에서 발견된 일부 매장 시설을 동일한 사회 구조의 무덤 분포 양상으로 보고 그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기, 석기와 같은 일반 생활형 유물조합 출토 양상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주로 옥으로 제작된 부장품이 발견된 것은 우하량 적석총의 특징이다. 부장 옥기는 매장 방식과 출토 위치, 외부 형태적 속성상, 당시 특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장신구들이다.<sup>65)</sup>

우하량 적석총의 구조적 특징에서는 축조 시기와 발전·변화 시기가 드러난다. 적석총의 분기는 그 구조

62) 이청규,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요령 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요하 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雷廣臻, 『牛河梁紅山文化遺蹟巨型禮儀建築物綜合研究』, 科學出版社, 2015; 郭大順, 앞의 책, 2017, 下卷.

63) 본 논문은 이동할 수 없는 대형 무덤을 매장 시설로 보고 일반 묘장과 구분하고 있다.

64) 徐子峰, 「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 『中央民族大學學報』 2, 2005, 58~62쪽.

65) 郭大順, 「紅山文化的“唯玉爲葬”與遼河文明起源特征再認識」, 『文物』 8, 1997; 郭大順, 『郭大順考古文集(上下)』, 遼寧人民出版社, 2017.에는 현재까지 그가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적 특징상 내부 매장 시설인 대형 무덤에서 확인된 출토 유물과 지면에 드러난 유물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적석총의 내부에는 다양한 형식의 매장 시설과 묘장들에 대한 매장 방법이 있지만, 무덤 크기와 구조 무덤의 방향, 묘주, 부장품의 출토 위치를 보면 관련 의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매장 무덤 대부분은 돌을 사용해서 벽과 바닥을 제작한 묘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매장의례 방법의 차이가 시대적 변천의 결과인지 아니면 당시 이와 같은 다양한 묘제 형식이 적석총에 공존하였는지는 불투명하다.

우하량 적석총 내부 묘장 형식 분류에서 차이점들이 보이는 것은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적석총과 그 내부에서 발견된 무덤들의 상관관계 때문이다. 필자는 우하량 적석총이 축조된 사회의 구조적 성격과 적석총 사회들 간의 관계를 위계나 역학적 관계보다는 생존 문제인 경제적 성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적석총 축조 목적의 특징은 제사 건축의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매장 대상 및 의례행위의 공유 대상과 방법들이 바뀌면서 사체 처리 장소에서 살아 있는 자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교류의 장소(場所)인 대규모 무덤으로서 제의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적석총 묘역의 지하, 지상, 지면에서 행해진 사체 처리의 대상과 방법들이 다양한 것은 적석총 축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장지(葬地)에 관한 묵시적 경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6)</sup>

당시 우하량 적석총들의 실질적인 축조 목적을 물질문화 자료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정신문화 속성들이 발견된 적석총 내의 무덤 분포 범위 때문이다. 둘째, 상당수가 소실된 돌담(내외 벽) 테두리는 일부 형태와 방향 윤곽이 지표면 상에 존재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 축조 목적과 인력, 경제력 동원 등 사회적 비중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동북 지역 고고학의 중요 연구 대상인 적석총 편년(축조 시기)과 그 문화적 성격<sup>67)</sup>이 구체적인 문화층 출토 편년 유물들에 관해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 없이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되면서 그 신뢰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장 시설 주변의 지하, 지상 좌우와 지표면 상에서 발견된 제사 흔적이나 희생 대체물(통형기 편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비롯해서 사자와 생자의 매개물로서의 정신문화적 의례 도구 사용 성격 속성이 공존했었다고 보이는 옥기도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개인 전공자의 연구 관점을 소개하는 데 그치게 된다.

적석총 축조 시기와 편년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의 이론이 반복될 수 있지만, 관련 문제는 지속적인 발굴 자료, 검토, 상호 자료 교환 과정과 같은 연구 진행 과정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적석총 연원 관계의 경우 그 정의와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우하량 적석총 축조 목적의 사회적 특징은 외부로 드러난 적석총 (묘장, 묘장 군)이라는 구조적 외형보다 그 내부 묘역에서 발견된 매장 방법과 매장 시설(대형 무덤) 부장품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원시종교적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돌이라는 특징적인 원자재의 지속적인 사용이다. 둘째, 매장 방법과 매장 시설들에서 볼 수 있는 출토 위치와 방향의 변화다. 셋째, 돌을 쌓고 그 위에 봉토한 특징적인 묘장 매장 방법에서 보이는 다양한 묘실 구조와

66) 원중호, 앞의 논문, 2019c.

67) 1986년 홍산문화와 관련된 발굴보고서가 발표될 때 적석총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매장 형식(통형기 묘, 옥기묘, 대형 무덤, 대형 석혈 무덤), 부장품의 변화다.

우하량 적석총 축조사회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정신문화 현상들은 자의에 의해 특정 형상의 매개물로 변화된 것이다. 서로 다른 생존환경 조건에서 개인들의 특징적인 생존 조건에 의해 발생한 문화적 현상은 서로 공유되거나 정신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우하량 적석총에서는 서로 다른 소규모 사회집단들의 자의적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장품 옥기와 원시적 정신문화 속성의 제의에 사용된 용기, 무덤, 사체 처리에 관련된 유구들이 발견된다. 일반 돌무지보다는 석재를 쌓아 만든 특수한 형태의 매장 방법으로 내부에서 발견된 묘장에는 서로 다른 묘실 구조와 매장 형식들이 존재한다.

우하량 제5지점 회갱의 내부 출토 유물을 분석한 결과 동물이나 인간의 시체를 일정한 절차 없이 버려(棄) 뒀거나 묻은(埋) 일반 묘지(墓地)의 성격이 확인된다.<sup>68)</sup> 적석총들의 묘장은 공동 목적을 위한 의례 행위와 관련된 매장 시설로 그 사용 기능이 점진적으로 바뀐다. 초기 적석총을 공동묘지 성격의 대규모 집단묘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당시의 사회 경제를 농경정착사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지점에 발견된 우하량 유적 적석총에서는 묘장 사용 기능의 변화와 그 발전 양상이 확인되었지만, 적석총의 매장 방법에도 관계된 옥기가 단지 부장을 목적으로 제작된 명기(明器)였는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대능하 유역의 半拉山에 있는 홍산문화 후기의 적석총 발굴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돌무덤인 적석총 내부에서 출토된 부장품 옥기나 묘장들이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교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적석총 축조인들의 교류 목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중국 동북 지역의 신석기 시대 적석총과 묘장에 관한 연구는 원시종교 제사 현상들이 발견된 신석기 시대 후기의 묘장 유적에 관한 신학(神學)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차적인 보충 자료로 인류학적 방법론과 민족지고고학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우하량 적석총 축조사회의 사회적 특징을 드러내는 매장 관습의 변화 양상인 부장품과 일반 묘장, 매장 시설과 원시 제의 건축의 변화를 통해 당시 적석총들의 자유로운 발전 양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매장 주체 부와 매장의례 부가 불투명한 돌무덤 구조인 적석총이 축조된 목적이 대규모 공동체 집단의 내부 구축을 전제로 하는 거대한 세습 권력의 출현(왕릉, 귀족 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하량 적석총의 축조 목적과 발전 과정을 적석총이라는 외형 구조보다 그 내부에서 발견된 매장 관습과 원시 제의 건축에 관련된 종교 직능 자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의 결과라고 정의한 것은 첫째 총체 주변에서

6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凌源市牛河梁遺址第五地點1998~1999年度的發掘」, 『考古』 8, 2001.

보이는 제사에 사용된 도구(祭器)로서 통형기 배열 흔적과 일정 부분 드러난 총계 벽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장과 시체 방치, 전입과 전출과 같은 매장 양상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적석총의 축조 목적을 대규모 제사 활동의 중심 장소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부 대형 무덤들과 그 구조와 출토 유물이 구분되지만, 상장 행위가 이루어진 채 발견되었고, 매장 형식의 특징이 있는 무덤들의 관계를 종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 자세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 초기 국가와 중국 고대국가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해석에 사용된 인류학 이론인 酋邦(Chiefdoms)은 수장이 있는 일정 규모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다. 우하량 적석총 축조 사회의 원시종교 무술 집행인들은 구성원들의 필요 때문에 종교 직능자들로 변화되었다. 강제력이 있는 사회 규범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제사 활동을 주관했거나 관리한 인물들과는 구분되게 그들이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sup>69)</sup> 필자는 두 가지 구분된 성격의 종교 직능인들이 같은 사회에 존재한 원인을 그들이 갖는 실질적인 생존 능력이 중시된 당시의 특징적인 사회의 정신문화 현상이라고 본다. 전업적 종교 직능자들이 선출직인 새로운 사회 권력 계급으로 정착하기 이전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회적 성격의 인물이나 집단이 병행해서 존재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회 영향력의 비중 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역할이 중시되는 젠더(gender) 사회의 도구, 장신구 제작 사용 주체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하량 유적 적석총에서 보이는 인구밀도나 부장품들의 원시 제의적 특징, 옥기를 제작하고 사용·관리한 인물들에서 보이는 다중 형태의 종교 직능인 속성은 단일 씨족 대규모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종속관계보다는 서로 다른 지역 환경에서 생존하는 소규모 집단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복잡사회(complexity society) 문화 현상이다. 당시 적석총 유적에서는 전쟁이나 폭력, 환경적 조건, 사회 분공을 통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위계가 존재하는 단일 씨족 대규모 공동체 사회 이외에도 특징적인 정신문화를 공유한 소규모 집단들의 생산과 의례적 차별화된 소규모 다중경제 집단들의 역학관계가 존재하였다.

우하량 적석총 축조 목적의 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하량 유적의 적석총 축조 집단들과 공존하는 옥기 제작·사용인 집단들의 변화다. 둘째는 적석총 구조의 대부분이 권위적인 거대 권력(왕릉, 귀족 묘)이나 문명사회의 출현의 특징과는 구분되게 사용자의 이동이 자유롭게 형성되었다.<sup>70)</sup> 셋째, 부장품 옥기 사용자들의 종교적 능력상 당시 사회의 특정 권위 집단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산물이라기보다는 제도화되지 않은 원시 제의 건축의 축조 인들이 주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일반 구성원들의 공감대에 의한 결과다.

### 〈참고문헌〉

- 김재운,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 1지점 ‘여신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호서고고학회』 44, 호서고고학회, 2019.  
 김정열, 「홍산 문화, 현상과 쟁점」, 『韓國上古史學報』 96, 한국상고사학회, 2017.

69) 沈長雲, 「酋邦, 早期國家與中國古代國家起源及形成問題」, 『史學月刊』 1, 2006.

70) 李仰松, 『民族考古學論文集』, 科學出版社, 1998.

- 서영대, 「韓國古代의 宗教職能者」, 『韓國古代史研究』 12, 韓國古代史學會, 1997.
-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인의 묘제와 사후 세계관」, 『古文化』 5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0.
-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 옥기 문화의 계보』, 『중국사 연구』 50, 중국사학회, 2007.
- 이청규,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요령 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요하 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청규·우명하,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108, 2019.
- 임상택, 「한반도 신석기 시대 복합 수렵채집 사회 성격 시론」, 『韓國新石器研究』 30, 2015.
- 오대양, 「홍산문화 적석총 유적의 형식과 발전 과정」, 『東洋學』 57, 동양학연구소, 2014.
- 오대양, 「요서 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동북아역사재단, 2014.
- 오강원, 「동북아시아에서의 초기 문명 기원과 문명의 고고학적 발현」, 『한강고고』 1, 2007.
- 원중호, 『中國 遼寧省 牛河梁 積石塚 變遷過程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9.
- 에드워드 버넛 타일러(저), 유기쁨(역), 『원시 문화』 1, 한국연구재단 총서, 2018.
- 尹大, 「龍山文化與仰韶文化之分析」, 『考古學報』 2, 1947.
- 張光直, 『考古人類學隨筆』, 聯經, 1995.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論中國新石器時代的分期問題」, 『考古學報』 1, 1955.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上中下』, 文物出版社, 201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塚群發掘簡報」, 『文物』 8, 1986.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省 牛河梁第二地點一號塚21號墓發掘簡報」, 『文物』 8, 1997.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第二地點四號塚筒形器墓的發掘」, 『文物』 8, 1997.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第五地點一號塚中心大墓(M1)發掘簡報」, 『文物』 8, 1997.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凌源市牛河梁遺址第五地點1998~1999年度的發掘」, 『考古』 8, 200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牛河梁第十六地點紅山文化積石塚中心大墓發掘簡報」, 『文物』 10, 200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中國人民大學曆史學院, 「2014年牛河梁遺址系統性區域考古調查研究」, 『華夏考古』 3, 2015.
- 樂豐實, 「中國文明起源研究的鴻篇力作—讀《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考古』 1, 2015.
- 李恭篤, 「遼寧凌源縣三官甸子城子山遺址試掘報告」, 『考古』 6, 1986.
- 安志敏, 「試論文明的起源」, 『考古』 5, 1987.
- 安志敏, 「關於牛河梁遺址的重新認識非單一的文化遺存以及“文明的曙光”之商榷」, 『考古與文物』 1, 2003.
- 郭大順, 1997, 「紅山文化的“唯玉爲葬”與遼河文明起源特征再認識」, 『文物』 8.
- 郭大順, 「中華五千年文明的象征—牛河梁紅山文化 壇廟塚」, 『牛河梁紅山文化遺址與玉器精粹』, 文物出版社, 1997.
- 郭大順,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2005.
- 郭大順, 『郭大順 考古學 論文集』, 科學出版社, 2017.

- 張宏彥,『中國考古學十八講』,陝西人民出版社,2008.
- 徐子峰,「牛河梁紅山文化積石塚探析」,『中央民族大學學報』2,2005.
- 李延燧·韓汝紛,「遼寧省凌源縣牛河梁出土的爐壁研究」,『有色金屬』3,2000.
- 熊增瓏·樊聖英,「遼寧朝陽半拉山墓地考古發掘取得重大收穫」,『文物考古周刊』5,2016.
- E. E. 埃文斯·普理查德·孫尚揚譯,『原始宗教理論』,商務印書館,2001.
- 張德水,「祭壇與文明」,『中原文物』1,1997.
- 魏凡,「牛河梁紅山文化第三地點積石塚石棺墓」,『遼海文物學刊』1,1994.
- 林沄,「中國考古學中“古國”“方國”“王國”的理論與方法問題」,『中原文化研究』2,2016.
- 雷廣臻,『牛河梁紅山文化遺蹟巨型禮儀建築物綜合研究』,科學出版社,2015.
- 熊增瓏,「紅山文化 墓葬 埋葬 特點 及 相關 問題研究」,『北方文物』4,2008.
- 呂昕娛,「紅山文化經濟形態述論」,『赤峰學院學報』8,2009.
- 劉國祥,『紅山文化研究』,中國社會科學院博士論文,2015.
- 劉國祥,『紅山文化研究 上下』,科學出版社,2015.
- 張星德,『紅山文化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 張星德,「牛河梁遺址“女神廟組”陶器的辨識及其意義」,『考古』11,2018.
- 周曉晶,「紅山文化玉器研究」,『吉林大學』博士,2014.
- 韓英,「略論紅山文化的埋葬習俗」,『科技信息(學術研究)』35,2007.
- 趙賓福·白玉川,「從居址到墓地:紅山文化牛河梁遺址的時代變遷與功能轉變」,『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2016.
- 沈長雲,「酋邦,早期國家與中國古代國家起源及形成問題」,『史學月刊』1,2006.
- 陰法魯·許樹安,『中國古代文化史:2』,北京大學出版,1991.
- 原海兵·朱泓 外,「牛河梁紅山文化人群的生物考古學探索」,『邊疆考古研究』14,2013.
- 李仰松,『民族考古學論文集』,科學出版社,1998.
- 宋兆麟,『巫与巫術』,四川民族出版社,1989.
- 王闢,「試論我國東北地區史前時期的積石塚墓」,遼寧大學 提供資料,2016.
- Annemarie de waal Macmillan,『*Religion and Culture*』,Macmillan,1968.
- E. E. Evans-pritchard,『*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oxford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2004.
- Nelson, Sarah, M,『*THE Archaeology of Northeast CHINA*』Routledge, London and New-York, introduction, 1995.
- Nelson Sarah, M,「Gender and Archaeology in Coastal East Asia」,『*A Companion to Gender Prehistory*』,Wiley-Blackwell, 2013.
- ELMAN R. SERVICE,『*Primitive Social Organization*』,Random house, 1968.

Charles S. Spencer, 「Rethinking of The Chieftdom」, 『*Chieftdom in the America*』,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onnecticut, 1987.

Finlay, N, 「Gender and Lithic Studies in Prehistoric Archaeology」, 『*A Companion to Gender Prehistory*』, Wiley-Blackwell, 2013.

Joseph Tainter, 『*The Collapse of Complex Societies (New Studie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이 논문은 2020년 6월 10일에 투고되어,  
2020년 6월 2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7월 13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 Abstract ■

---

### Rethinking the Build Process of the Stone Mound Tombs in NiuHeLiang

Won, Joong Ho\*

The sites of NiuHeLiang(우하량) officially excavated in 2003. Even now, studies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related relics continue steadily. The presence of large-scale Stone mound tombs identified in 1983, provided essential data for the interpretation of Stone mound tombs in the Late Neolithic Period in the Northeast.

In this paper, the process and social features of the build of the stone mound tombs at that time exam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burial methods and excavated artifacts.

The study of the Stone mound tombs in northeastern China has steadily conducted by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and the resident's mental world view, viability, and spiritual cultur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Stone mound tombs, is unclear as it concentrated on whether or not the hierarchical structure is mass-produced.

Even now, the problem continues that excavated artifacts reflecting the temporary dynamics of the late Neolithic society in the Northeast region interpreted as the context of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hierarchical groups in large-scale community socie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burial methods and characteristic burial relics found inside the burial gun(the 2, 3, 5, and 16th of NiuHeLiang) confirmed free burial methods and free changes in private burial excellent jade properties.

At that time, three main archaeological culture properties show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Stone mound tombs in NiuHeLiang. First, the discovery of burial methods conducted in different locations. The second lively and free type and use of burial goods jade and the change of manager(specialist). The third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structure of the Stone mound tomb's social members' movement and exchange activities were free. Based on this, the process of the build of the sites of NiuHeLiang(우하량), known as the standard group tomb of the agricultural settlement society, was reconsidered.

**[Key Words]** NiuheLiang sites, Stone mound tomb of NiuheLiang, burial method, primitive ritual architecture, burial goods jade, Stone mound tomb society

---

\* A Ph.D. Interdisciplinary Archaeology, Inha University

